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창인 편집인: 우기전 편집국장: 조선근

'96 찬양대 여름수련회 시작

주로 2박 3일간, 8월 중 실시가 많아
강사는 각 찬양대 지휘자 중심, 외부 장소에서

찬양위원회(위원장 손동운 장로)에서는 96년도 각 찬양대 및 연주대의 여름수련회 일정을 마련하고, 각 대별로 수련회를 갖기로 했다.

이미 지난 7월 3일에 호산나찬양대와 7월 4일에 크로마하프연주대가 수련회를 마쳤다.

이번 수련회는 여섯 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할렐루야, 임마누엘 연합), 핸드벨, 크로마하프연주대 등으로 총 800여명의 대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할렐루야, 임마누엘오케스트라는 연합으로 모여 청소년들에게도 문을 열어 참석할 수 있게 하였다.

각 찬양대의 수련회는 교회학교와 같이 교육부서가 아니고 각 연령층이 다양하게 모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인원들이

함께 하고 있기에 교육적 필요가 있으면서도 이를 채우기가 어렵고 동질감을 갖기가 어렵다. 그러나 찬양이란 모두가 동일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요구되는 것이다. 이에 1년에 한 차례이지만 각 찬양대가 여름에 전 대원이 함께 수련회에 참여하여 서로간에 서로를 알고 익히고 이해하고 신앙적 교육과 또한 부족한 연습 시간에 할 수 없었던 음악적 기량을 닦을 수 있으므로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일이다.

따라서 찬양대원들이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일이 거의 없는 일의기에 찬양대원들은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간에 이해를 새롭게 하는 데 노력한다면 더할 나위없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찬양대	일시	장소	강사
가브리엘	8월 5일~7일	백리포해안	김희수 목사, 조신욱 집사
임마누엘	8월 14일~16일	홍익대수양관	박경한 목사, 장기범 선생
할렐루야	8월 15일~16일	유명산계곡	이종석 장로, 김철륜 선생
아 멘	8월 8일~9일	남한강종합수련장	박경한 목사, 이수철 집사
시 온	8월 16일~17일	구세군학교	이승림 목사, 이진우 선생
호산나	7월 3일	베다니홀	김철륜 선생
오케스트라	8월 5일~8일	구세군학교	박경한 목사, 이수철 집사, 장기범 선생, 윤혜경 선생, 이귀자 사모, 김정수 선생
핸드벨	7월 17일	핸드벨연습실	박경한 목사, 송재월 선생
크로마하프	7월 4일	중현기도원	윤종일 목사, 이승순 집사

오늘은 맥추감사절

감사, 헌신, 용서, 화해의 마음으로 지켜야

오늘은 교회가 맥추감사절로 지킨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430여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날인 유월절과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기념하는 절기로 가을 추수가 지난 뒤 일주일 동안 지킨 수장절(장막절)과 함께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로 유월절이 지난 7주 후 다음날인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때는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

나님께 드리기에 초실절이라고도 하는 절기이다.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 중의 하나이면서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다.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시어 성령 충만을 받게 한 오순절을 말하기 때문이다. 즉 초대교회가 세워진 날이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중요한 절기로 지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날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드리는 것과 같은 헌신의 마음으로,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해하며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교회는 오늘 맥추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예배 시간에 맥추감사절 특별헌금을 드리게 된다.

(지난해 맥추감사절 행사 모습)



실업인전도회 특별초청집회

7월 9일 오후 7~9시, 갈릴리홀에서

중현실업인전도회(회장 임무천 장로)에서는 대상 회원 초청 전도잔치를 오는 7월 9일(화) 오후 7시에 갈릴리홀에서 갖게 된다.

중현실업인전도회는 자기 사업을 하거나 기업체의 중견 간부 이상인 성도들 중 현재 140여명의 회원이 '우리 사업장을 복음화하고 중현교회의 부흥 발전에 힘이 되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모이고 있다.

중현실업인전도회는 미자립교회의 교역자와 불우 환경(편모 가정)의 청소년들을 후원하는 구제사업, 교회의 여러 부서에 대한 지원, 경찰 전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중현실업인전도회에서는 이번 집회에 대상자만이 아니고 마음이 있

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석해서 말씀으로 은혜받고 중현실업인전도회에서 하는 일을 보고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를 바라고 있다.

중현실업인전도회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은 이번 기회에 실업인전도회에 가입하여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선한 일에 동참한다면 여러 모로 유익할 것이다. 이날 집회의 강사는 장봉생 목사(대학부 지도)이다.

집회 후에는 간단히 다과를 나누며 참석자를 위한 기념품도 준비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특별초청집회 모습)



예비신랑신부교육부

96-7기 수강생 모집

교회학교 예비신랑신부교육부(부장 송환창 장로)에서는 건강한 가정을 꾸미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약혼 중이거나 장차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남녀 적령기의 남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기간
7월 7일(주일)~8월 25일(주일)
매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40분까지(2개월 과정)

2. 교육장소
교육관 208, 209호

3. 교육내용
① 성경적 결혼관 ② 겸손한 결혼준비 ③ 부부의 성격 테스트 ④ 가정법을 상식 ⑤ 가정 의학 상식 ⑥ 부부간의 대화 ⑦ 배우자 가족과의 관계 ⑧ 건강한 부부생활



충현강단

● 김창인 목사의 시편 강해 ●

고민에서 희망으로

(시편 22:22-31)

이 시편의 기록의 배경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생명이 아까운 줄도 모르고 원수가 무서운 줄도 모르고 싸워서 나라를 건진 다윗 장군, 구국 공신 다윗 장군이 억울하게도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을 다니면서 어떤 때에는 빈 들에서 소나기를 맞고 어떤 때에는 높은 산꼭대기에서 찬바람을 맞으면서 피난 생활 1년, 2년 지나는 때입니다.

다윗 장군은 사랑하는 자기의 부하들과 함께 심 황무지에 가서 숨었습니다. 그러나 심 황무지의 사람들의 고발로, 사울 왕은 많은 군인들을 거느리고 다윗 장군을 잡아 죽이려고 심 황무지로 내려옵니다. 이때 다윗 장군은 자기가 고발된 것과 사울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알고서 심 황무지 사람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땅 위에는 억울한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자도 없이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습니다. 사울 왕과 싸울 수도 없고 도망가려니 피할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내용이 초두에 나옵니다.

이 시편 22편은 이사야 53장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당하시는 일들을 예언한 예언서로도 유명한 시입니다.

1. 다윗의 고민의 호소가 어떠합니까(22:1-21절)

(1)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고민에 빠진 다윗의 호소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절망 상태에서 부르짖는 음성도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라고 거듭 찾는 것을 보던 끝까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점점 더 가까이 달라붙는 기도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오래 당하니까 낮에도 위태롭고 밤에도 위태로운 다윗은 낮에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원인인지 하나님이 안 들어 주시는 것 같아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숨기고 안 보이는 분도 아니시고 성도들의 울부짖는 음성을 못 들으시는 분도 아니시고 성도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안들어주시는 분도 아니신데, 분명히 하나님은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약해서 기다리기가 힘들습니다. 기다리기가 힘든 인간이기에 하나님이 안 보시는 것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다른 계획을 가지시고 돌보아 보호하시면서 연단시키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즉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어도 안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으시니 내가 신음소리 하는 것만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불러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2) 나는 벌레입니다

다윗은 "나는 다 잘했는데 사울 왕이 못돼서 이렇게 억울함을 당합니다" 이런 말을 안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뱀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니이다" 겸손한 부르짖음입니다. 벌레는 약하고 값이 없고 더러운 것입니다. 즉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 이유로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뱀방을 당하고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웃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하나님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벌레 취급을 당하고 천덕꾸러기가 되고 뱀방거리가 된 처지이지만 "내가 세상에 날 때부터, 어머니의 젖을 빨아 먹을 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는데 어찌 중간에 나를 버리시겠나이까. 내 하나님, 나를 돌보아 주소서. 환난은 가깝고 피할 곳은 없사오니 나를 하나님만이 돌보아 주소소서" (22:9)라며 애타게 하나님께만 호소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올니다
주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3) 나는 처참한 포로입니다

황소들은 힘이 세지만 지체가 없어서 사람의 이용감밖에는 못됩니다.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오는 그 군인들은 황소처럼 힘은 센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모르고 악한 자에게 이용만 당하는 바보들입니다. 바산의 들소는 보통 황소보다 더 힘이 셉니다. 그처럼 미련한 사람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용맹스럽고 실력이 있습니다. 또 사자가 입을 벌리고 오는 것같이 물려옵니다. 사자는 사냥고 날쌔고 잔인한 동물입니다. 또 개와 악한 무리들이 다윗을 에워쌌다고 했습니다. 개는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더러운 동물입니다. 즉 자기의 잘못을 느끼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무리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원수들로 인해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기운이 빠져서 마침내 뼈를 세기 좋게 되었습니다. '원수들이 강하여 도망다니고 나니까 재산은 다 잃어지고 살도 빠졌고 이제는 뼈를 세기 좋을 정도가 되었으니 내 처참한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영혼을 칼에서 건져 주소서. 내 하나님께 없는 것을 건져 주소서' 다윗에게 남은 단 하나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기도와 찬송하기 전에는 한숨이 나오더니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서 감사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덤빌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말에 실수하기 쉬우니 조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담대해지고 조심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복은 옵니다.



2. 다윗의 찬양이 어떠합니까(22-26절)

기도와 찬송하기 전에는 한숨이 나오더니 기도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해져서 감사하는 찬송이 나옵니다. "하나님, 내가 울부짖어 기도한 것을 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이 생기니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니 덤빌 마음,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다만 말에 실수하기 쉬우니 조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믿고 담대해지고 조심하면서 실수하지 않으면 복은 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은 의롭고 괴롭고 위태로운 지경에 있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므로 잠시 있다가는 내가 형제들에게 대접을 받으면서 형제들 앞에서 복창을 하겠습니다" 즉 지금은 도망다니지만 이제 얼마 있다가는 내가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잔치 하는 날이 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세 가지 복이 오게 됩니다. 먹고, 배부르고, 기쁨으로 노래 부르고, 생명은 장수하는 복입니다.

3. 다윗의 소망이 무엇입니까(27-31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영육이 아울러 부자가 되고 근심을 모르고 기뻐서 춤추고 노래할 때에 내 생명 손떨 자가 없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을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뻐 춤추며 경배하겠습니다. 또 바로 믿으려고 애쓰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갖은 악독한 행동을 하던 사람도 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죽으면서 하나님은 계시구나 하고 축제가 될 것입니다" 참 재미 있는 말입니다.

그 날에는 후손들이 그를 봉사할 것이요 대대로 주를 찬양 것이며 후손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만민에게 전하게 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윗 장군의 고생을 기억하십시오.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해결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 장군 부르짖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나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연단받아 마음 그릇 준비하도록 때를 기다리신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때가 오면 복을 받을테니 중도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고개를 넘어가면 꽃밭이 있을 것입니다. 일이 힘들다고 남을 원망하고 낙담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둘째,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니 아무리 어려워도 찬송을 부릅시다. 찬송을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기가 막혀도 기도하고 찬송하면 괴로운 중에서도 마음에 천국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도 복을 받습니다.

셋째, 의인이 복을 받을 때는 친구들이 춤추고 비방하던 사람들은 회개하고 예수 믿는 날이 오고 죽이려고 덤벼들던 자가 죽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넷째, 바로 사는 사람에게는 원수는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세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황소 같고, 사자 같고, 개 같은, 참 고약한 원수가 많습니다. 그 원수들 때문에 인간적 생활비가 끊어져서 고통은 나누고 속웃은 제비뽑아 아무것도 없는 때가 올지 모릅니다.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서 또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당한 이런 일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않고도 조금만 어려우면 원망, 비방, 낙심, 낙담하기 쉽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2년이 되기 전에 다윗이 임금이 되는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 온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믿고 나가서 다윗 장군이 받은 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내 민족 전체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 맥추절을 맞이하여 *



맥추절의 의미와 생활에의 적용

김희수

(목사, 중동1부, 제11교구, 교육훈련원 지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세 차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명령하셨습니다.(출 23:14)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무교병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해 가던 역사적인 해방의 날입니다.(출 12:1-14) 둘째는 수장절입니다. 장막절(레 23:16), 초막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생활하였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가을 추수가 끝난 뒤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셋째는 맥추절입니다. 칠칠절이라고도 하는데 유월절이 지난 7주 후 다음날인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출 23:16-21) 이때 밀과 보리를 수확하고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에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출 34:22) 신약시대에는 50이라는 숫자 때문에 오순절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맥추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 전날 밤에 성경을 읽고 다음날인 맥추절 예배 시간에는 모든 회당에서 일제히 십계명을 공적으로 읽는 행사를 가집니다.

1. 맥추절이 주는 신학적 의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지키라고 명령한 세 가지 절기는 모두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에 관한 전리의 예표요 상징입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예표가 되며, 장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

로 말미암아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완성을 기뻐하는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맥추절은 성도의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교회 형성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유월절의 예표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과거의 사건이라면, 수장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맥추절에 대한 예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현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맥추절은 현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 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맥추절은 출애굽 사건을 다시 회상하고 이스라엘 신앙을 재확인하는 유월절 행사와 연결이 되면서 그 의미가 더욱 풍성해집니다. 즉 밀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언약의 공동체로서 땅과 그 소산물과 노동과 결실이 공동체의 축제 사건임을 고백하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던 것입니다.

맥추절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축제일 뿐만 아니라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성도들에게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 주시어 성령 충만을 받게 하신 날이 오순절이며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맥추절은 어느 절기보다도 더욱 뜻이 깊은 절기인 것입니다. 더구나 성령께서 강림하시어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오순절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맥추절인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니 맥추절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절기임에 틀림없습니다.

2. 맥추절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바람직한가

첫째,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주시며,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여 축복의 땅, 가나안의 땅을 정복하도록 하시어 농사를 지어 결실을 맺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든 일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고로 우리들도 지난날에 나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가 경영하는 생업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신 8:17, 18)

둘째, 첫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서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해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신 16:10)라고 했습니다. 처음으로 거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으면서 첫 열매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맥추절을 지켜야 합니다. 결코 인색하거나 마치 못해서 드리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웃으로 더불어 함께 하며 구제를 하며 지켜야 합니다. 수확을 한 이스라엘은 가난한 이웃을 되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곡식을 생산하지 못한 이웃과 더불어 가난한 이웃에게 수확한 것을 나누어 주는 이웃 사랑을 하면서 맥추절을 지켰습니다.(레 19:9, 10; 신 15:7-11) 오늘날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키면서 우리 주

변의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구제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있게 된다면 더욱 의미가 깊은 절기가 될 것입니다.

넷째, 서로 용서하면서 화목하며 기쁨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맥추절을 지키면서 그동안 서로에게 잘못된 이웃들과 화해하며 서로 용서하고 기쁨으로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맥추절을 지키면서 진정 기쁨의 축제 절기가 되기 위해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진정한 맥추절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첫째, 영육간에 풍성하게 재물을 받게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베푸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지경이 넓어지고 보호받는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는 자를 마귀의 권세에서 지켜 주시겠다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출 34:24)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진정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를 기뻐하시고 생업이 더욱 번창하도록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맥추절을 잘 지키므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는 복을 받아야 하겠습니까.

맥추절은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날 도시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직장과 사업체에서 일합니다. 그러나 맥추절을 지켜야 된다는 중심적 내용에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나아가 가난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면서, 용서하면서 지키는 맥추절이 된다면 그 어느 해보다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축제의 절기가 될 것입니다.

정경다리



나를 깨우쳐준

초등부 사역

김필수

(목사, 초동5부, 제13교구 지도)

라고 교사들에게도 그렇게 하자고 부탁했다.

이렇게 아이들의 이해에 맞는 표현을 생각하는 중에 몇몇 생각나는 것이 있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께서 땅의 사람들을 상대하셨을 때 김경이 어땠을까?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다. 지식의 유무와 상관없이 다만 마음이 준비된 사람이면 누구라도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나를 설레게 했다.

하늘에서 오신 예수님은 유창한 하늘의 방언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예

번복해서 사용하고 정형화된 말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심지어는 누구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 줄 수 없는 말도 잘도 쓴다.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심장에 살아 꿈틀거리고 숨속에 용해되어 흐를 때, 마음표로만 말할 수 있는 정형화된 말이 아니라 반추되고 반추(되새김질)된, 파와 살과 껍과 호흡속에 흐르는 지·정·의로 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때 힘이 있는 것이다. 내가 아이들을 맡아 사역하면서 어느 때는 박찬 가슴에 잠이 들게 할 정도로 깨달은 사실은 어느 대상이든 저는 높이로 잘하고 가르치며, 그러기 위해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혹시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릴까봐 조심스럽다. 내가 이처럼 실천하고 있지는 못하고 이때 깨달았으니 앞으로 평생 이러한 자세로 가르치며 증거하며 묵묵하고 싶다는 것이다. 나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와같은 사역에 동참한 수많은 귀염고품땡땡한 어린 친구들에게 감사한다.

나는 신학교 2학년 때부터 우리교회의 초등부 사역을 맡음으로써 교역자로서의 사역을 출발했다.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미안한 말이지만, 처음에 초동1부 그러니까 유치부를 갖 거처서 올라온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들을 맡게 되었을 때는 정말 당황스러웠다. '적어도 중학생 이상을 맡으면 좋을 텐데...'라고 평소에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걱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어쨌든 맡겨진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우선 거울을 보면서 아이스런 표정으로 아이들의 어법으로 말을 해보았다. 예컨대, 기도를 할 때에는 "귀룩하신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로, "해주시옵소서"는 "해 주세요"로, "인도해주시옵소서"는 "이끌어주세요"로, "기도드리옵나이다"는 "기도드립니다"로 바꿔서 연습했다. 또 살교를 할 때에는, "있잖아요", "그렇거든요"라는 투의 말을 사용해보았다. 그리고는 첫번째 주일에 강단에 섰는데 얼마나 스스로도 그러한 표현이 어색하고 쑥스러웠는지 몰랐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하려고 노력했다. 그

수많은 땅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땅의 언어를 사용하셨다. 그것도 갈릴리 사골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구수한 시골말로 말씀하셨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땅의 말로 말씀하셨지만 하늘의 사랑과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전달해주셨다는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복음은 쉬운 것이요, 쉽기에 전파된 것이다. 쉽다는 것은 심오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다. 가장 심오한 것을 가장 쉽게 전파하는 능력, 그것을 예수님은 확신 것이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배우지만, 한편으로는 대량에 정형화(定型化)되어간다. 그리고 지식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나 마음표로 많이 사용해서 이때 있는 말을 그대로



‘함께 하는 청년’

청년1부는 ‘함께 하는 청년’을 주제로 6월 29일, 30일 양일간 교회내 홀아져 있는 청년들을 모아 청년의 역할 및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6월 29일(토)에는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한 선교바자회 및 일일차집, 찬양 콘서트 등을 가져 500여명의 젊은이들이 이에 참여하는 큰 성황을 이루었다. 청년1부는 이 일을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과 함께 200여명의 출석회원들이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매 주일 전 교인 상대의 청년부 홍보, 교회내 대상자들에게 전화 방문 및 서신 발송, 철야기도회 등으로 준비해 왔다. 6월 30일(주일)에는 350여명의 청년들이 청년1부를 찾아와 청년 1, 2, 3부 통합 이후 제일 많은 인원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

교회에서도 청년들의 이런 운동에 관심을 가지고 당회원, 안수집사, 권사 등의 제직들이 물질적으로 또는 바자회 물품을 기증해 주는 등 적극적으로 도와 주었다. 이번 행사는 청년1부 전 회원이 “자발적으로 나서 신앙적 소속감은 물론 선교적 사명을 고취시켰다”(기독신보)라는 내외의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충현남성중창단 연주회

7월 11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충현남성중창단의 연주회가 7월 11일(목) 오후 7시 30분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이 연주회에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의 20여곡과 콘트라베이스(이규원), 첼로(오경남), 트럼펫(차복근) 연주도 있게 된다.

남성중창단은 1994년, 교회내 찬양대원들로 구성, 그동안 저녁 찬양예배, 금요집회와 대외적으로 연주 활동을 해왔다. 이 날 연주회는 충현교회 찬양위원회가 주관하고 실업인전도회, 아델전자가 협찬, 크리스찬라이프와 아세아방송, 극동방송의 후원으로 열린다. 충현남성중창단은 김윤경 선생 지도하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장 / 차신득 장로

지휘, 피아노 / 김윤경 선생

테너 1 / 이재욱, 최문성

테너 2 / 김봉근, 노영광, 장상원,

바리톤 / 전이배, 홍인국

베이스 / 이규원, 이진석

남성중창단은 CD 음반을 제작하여 당일 연주회장서 판매하고 그후에는 교회 테이프 보급소에서 판매한다.

당일날 교통편은 지하철 양재역에서 하차하면 서초구청 앞에서부터 연주회장(서울교육문화회관)까지 셔틀버스가 매시간 10분, 30분, 50분마다 2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또한 교회버스가 수시로 운행된다.

4 맥추절을 맞으며 ▶

높은 곳에 드리는 감사

싱그러운 실록의 오뉴월 태양빛
일꾼의 부지런한 손놀림은
푸른 보리 이삭 가을을 꽃 피우며
매가 되면 아낌없이 물 쏟듯
첫 이삭 당신께 드리는 약속의 감사.

뚝뚝 떨어지는 칠월의 땀방울은
황금 보리밭 일렁이는 물결
헤프지 않는 정성 깨끗한 마음
보리 내음 진한 입술 사랑의 열매
제단 앞 향내 피우며 바치는 기쁨.

겸손의 마음은 이웃의 열매가 되고
주님께는 알곡으로 기다리는
죄악을 벗어버린 적나라한 모습
받으소서 이 모습 이대로 받으소서
나의 노력 나의 감사 풍성한 제물.

과거보다 현재 현재보다 미래를 향해
흔음을 아껴가며 뜨겁게 안고 사는
기도의 진주알 깨물기 전
당신이 가까이 오셔야 겨우 고개 들고
정성 모아 높은 곳에 드리는 감사.

맥추절 유월절 수장절

구약에서 신약으로 지켜온 삼대 절기
많은 적은 넉넉한 마음의 풍요가
당신께 큰 기쁨 안겨 드리는
이스라엘 최대 명절 성령강림절.

김은섭

(집사, 초동3부 교사)

* 선교지예소 온 소식 / 홍콩 김은태 선교사 *



결신한 영혼들의 지속적 성장을 바라며

명, 어린이가 10명 됩니다. 지난 수난주 간에는 금요일 하루 금식기도회로 모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부활 주일에는 정성껏 예쁜 부활절 계란을 준비해 진열했고 시상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함께 버스를 대절하여 야외에 나가 바베큐를 나누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콩의 바베큐는 그냥 꼬챙이에 고기를 끼워 구워먹는 간단한 것이고 아주 대중화된 야외 식사 방법인데도 생전 처음 와 보았다는 할아버지가 두 분이나 계시서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호뭇하게 했습니다. 지난 5월 12일은 어머니날이었습니다. 꽃을 준비해 어머니들에게 달아드리고 선물도 전하며 격려했습니다. 작은 축하였지만 모두들 기뻐하였습니다. 기도회, 성경공부, 축회전도가 계속되고 있으며, 월 1회 병원 전도와 노인원 방문 전도가 은혜롭게 진행 중입니다.

새로이 시작된 모임으로 4월에 시작된 세례를 위한 성경공부반이 있습니다. 매주 낮 예배 후에 진행되고 10주간 공부를 마치면 6월 23일 세례를 줄 예정입니다. 또한 부활주일부터 찬양대가 편성되어 예배때마다 찬양으로 예배를 더욱 은혜롭게 하고 있습니다. 남자 대원들이 빨리 보강되어 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5월부터 수요일 낮에는 성도 중 문맹인을 위한

중국어 글자 배우기 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글을 깨치고 난 후에는 성경 말씀도 읽고 영혼이 더욱 환히 밝아 지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축회전도는 저희들에게는 무척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년 5월 중순 토요일 첫번 축회전도 이후 일년이 되는 날이었고, 우두각 상촌의 전도를 마치고 새롭게 하운을 전도하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이제껏 상촌에서 함께 하시고 많은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새롭게 하운 전도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도 모세 부인의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튿날 예배에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1천 가정(아파트 한 동 안의 가정 수)의 문을 두드려도 한 영혼의 결신도 없었던 상촌 첫 전도에 비하면 너무 감격스러운 첫 출발이었습니다. 좋은 출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여시엔 단을 자고 없고 단으시엔 열 자가 없는 주님께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충현교회에서 교회 월세비를 감당해 주시게로 결정하고 또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로서는 전혀 뜻밖의 물질이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공급 가운데 한 번도 월세의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자라왔으므로 어떻게 사용할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월세는 처음

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중 감당해왔으므로, 전부터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선교사들의 속소와 선교 훈련에 쓰일 장소를 얻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홍콩은 워낙 임대료가 비싸 마땅한 장소를 얻지 못하고 기다리던 차에 주께서 좋은 장소를 주셨습니다. 집 주인이 크리스찬 변호사로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부동산업을 하는 믿는 형제를 통해 듣고, 그가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그는 전부터 이 장소가 주의 종들에게 쓰이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30년 이상 교회로 쓰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홍콩 주택 형편으로 보면 꽤 넓은 평수인데 상당히싼 가격(월세 70만 원)으로 주었고, 일체의 보증금도 받지 않고, 소개비도 자신이 전액을 부담하는, 흔치 않은 일을 경험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홍콩섬에 위치해 있고 교통이 매우 편리한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지하철로 세 정거장이면 도착되는 가까운 곳입니다. 바라기는 중국 내지에서 지역하는 선교사, 많은 세계 각지의 선교사들이 홍콩에 오면 여기서 머무르며 쉬고 새로운 선교의 비전을 활력을 찾는 곳이 되며, 단기 선교 훈련을 받기 원하는 형제 자매들이 이곳에서 머무르며 훈련받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선히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사역하는 가운데 늘 마음 깊이 있는 소원은 연합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쓰임 받기 원하는 중심을 보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더욱 강한 섬김으로 주님을 앙망하기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마음을 생각을 늘 주장하시기를 기도합니다.

1996년 5월 홍콩 우두각에서

김은태 선교사 올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서서히 햇살이 따가워 짐을 느낍니다. 거리에는 한창 제철인 씩씩해 보이는 방망이들(두리안)이 부드러운 노랑의 과육을 숨긴 채 덩어리로 쌓여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냄새도 맡지 못해 피하며 다녔던 과일인데, 홍콩에 온 지 4년 반을 지나면서 용기를 내어 시도한 결과 이제 즐기는 과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 중에 이곳 사역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1월 26일부터 홍콩대운동장에서 있었던 연합전도집회에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도 몇 명의 불신자를 초대하여 참석했으며 두 형제는 결신하였습니다. 바라기는 결신한 많은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각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는 것입니다.

1월 29일부터 10일간 서울장로회신학교 학생들과 가졌던 단기 선교 또한 은혜 중에 잘 마쳤으며, 기간 동안 그들이 보여준 사랑과 뜨거운 기도는 저희들에게 큰 힘과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했으며 두 형제는 그때 인도되어 꾸준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가운데 와서 단 마음으로 헌신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홍콩에 와서 저희와 함께 중국 선교에 헌신하기로 한 찬형제 가정은 제가 지난번 한국 방문 때에 후원 교회가 정해져서 지금 그 교회(진주 작은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훈련 중이며 그 교회에서 평신도 선교사로 파송할 예정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두각 장로교회는 계속적으로 꾸준히 영적, 숫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일 낮 예배 출석자 장년이 25-30